

2026년 세계 철강수요 전망

- 세계철강협회 단기전망(SRO)을 중심으로 -

추지미 수석연구원, 경제정책연구센터 (jmchu@posri.re.kr)

목차

1. '26년은 세계 철강 수요 "저점 탈출"의 해
2. 중국 수요, '26년 8억톤 하회로 대폭 하향조정
3. 인도, 주요국 중 가장 독보적인 수요 고성장
4. 아세안·중동, 중국 수요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한계
5. 선진국, 회복세 약화로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 하회
6. 한국, 구조적 수요 부진 장기화 우려
7. 종합 및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**세계 철강수요는 중동전쟁에 따른 하방압력에도 선진국의 반등과 신흥국 성장으로 '26년 전년대비 0.3% 증가하여 지난 2년의 감소세에서 반등**
 - 세계철강협회 4월 전망에 따르면, '26년 글로벌 철강수요는 지난 2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고, '27년에 2%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
 - 한편,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비용 상승이 지속된다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야한다는 입장 표명
- **(중국) '26년에도 감소세를 지속해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**
 -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건설용 수요는 구조적 성장 한계에 봉착 반면, 자동차, 기계 등 제조업 부문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고급 강재 수요 견인
 - '25년 철강수요는 당초 예상(2.0%)보다 큰 폭 하향조정된 7.1% 급감한 8억톤 내외 기록, '26~'27년에는 7.8억톤 예상
- **(인도) 탄탄한 철강 내수는 지정학 불안과 글로벌 수출 환경의 변동성을 상쇄하는 완충 역할(Resilience)을 하면서 글로벌 철강수요를 지지**
 - 인도 철강수요는 7%대의 경제 성장과 견조한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어 '26~'27년 7~9%대의 고성장 전망
- **(신흥국) '26년 MENA 지역 감소와 ASEAN 증가세 둔화 등으로 증가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글로벌 수요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한계**
 - ASEAN-5는 지난해 수요 급증의 기저효과로 1~2%의 완만한 증가에 그치며, MENA는 중동전쟁 발 경제와 산업 활동 타격으로 4.5% 감소 우려
- **(선진국) 미국·유럽 수요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하향조정으로 회복세 약화, 일본은 60년만에 최저치 예상,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 하회**
 - '26년 미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동전쟁 영향으로 1.7% 완만하게 증가, EU+영국은 유가 상승에 따른 제조업 경기 둔화로 1.3% 증가에 그칠 전망
 - 일본 수요는 5년 연속 감소한 4,790만톤으로 60년 만의 최저치 기록 예상
- **(한국) 건설경기 침체와 제조업 회복 지연으로 인한 수요 부진 고착화로 '26~'27년 4,500만톤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**
 - 다만, 전방산업의 회복 지연에도 수요절벽의 기저효과로 '26년 반등 기대

1. '26년은 세계 철강 수요 "저점 탈출"의 해

□ 글로벌 철강 수요는 중동전쟁 영향에도 선진국의 완만한 회복으로 '26년 전년 수준에서 소폭 증가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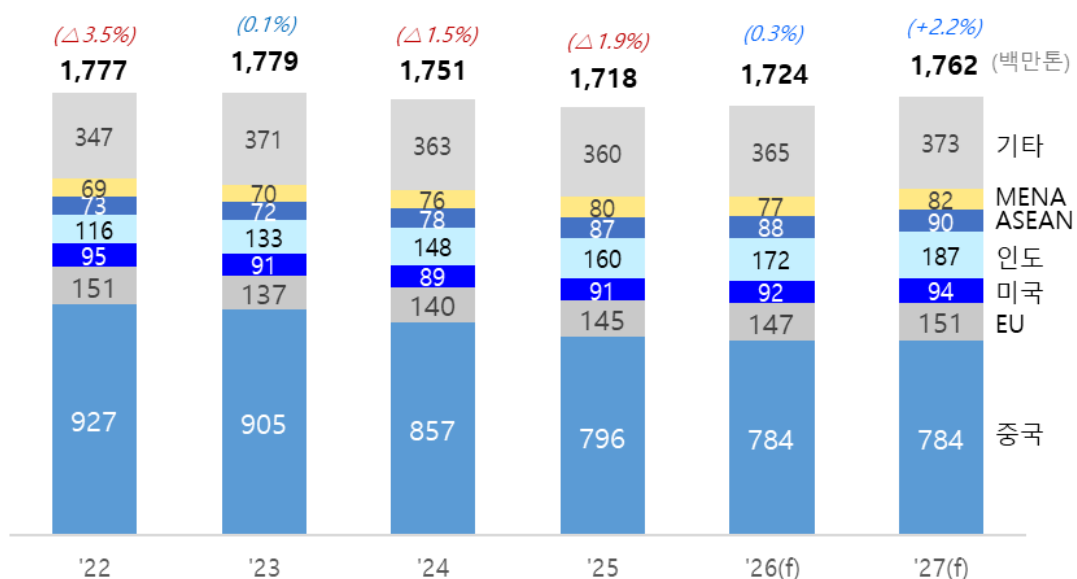
○ 세계철강협회 4월 전망에서 '26년 세계 철강 수요는 지난 2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나고, '27년에 2%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

- '26년 세계 수요는 중동전쟁에 따른 하방압력에도 미국, 유럽의 1%대 성장과 인도의 고성장에 힘입어 0.3% 늘어나며 반등
- 기본 가정은 중동전쟁이 6월까지 종전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파급 영향이 크지 않으며, 특히 미국, 중국, 인도 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충격이 약할 것을 전제함

○ 다만,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비용 상승이 지속된다면 전망치를 하향조정 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

- 세계철강협회 경제분과위원회 Alfonso Hidalgo de Calcerrada 위원장은 "만약 2분기 이후에도 중동에서 적대행위가 지속된다면 에너지 민감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망치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"고 언급

【 worldsteel 세계 철강 수요 전망 】



*자료: worldsteel, Short Range Outlook, '26.4월

2. 중국 수요, '26년 8억톤 하회로 대폭 하향조정

□ 저성장 시대 중국, 내수 기반 고품질 성장과 기술 산업 체계 구축

○ 경제는 부동산 위기, 소비 침체 등으로 성장 둔화 현실화 → 구조적 저성장 국면

-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'26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1991년 이후 최저치인 4.5~5.0%로 하향 제시
- 안정 성장과 개혁 사이 균형을 위한 4대 중점 과제* 추진

*① 내수 강화, ② 신성장 동력 배양, ③ 전국 통일시장 건설, ④ 반내권 정비 및 부동산·지방 부채 리스크 방지

- 산업 정책으로는 철강, 석유, 화학, 조선 등 구조조정 후 프리미엄 생산기지 구축 및 혁신을 비롯해 新에너지차, 로봇, 바이오, 우주, 수소 등 신성장 동력 육성

□ 중국 철강 수요는 부동산 침체 및 산업 재편 등으로 '26년에도 감소세를 지속해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

○ '25년 철강 수요는 당초 예상(2.0%)보다 큰 폭 하향조정, 7.1% 급감해 8억톤을 하회했으며 '26~'27년에도 7.8억톤으로 추가 하락 예상

-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 수요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거나, 건설용 수요는 부동산 부양책 부재로 '27년까지 지속 감소 전망

【 중국 철강수요 전망 】

	MPI	WoodMac	worldsteel	
	'25.12월	'26.3월	'25.10월	'26.4월
'25년	-5.4%	-7.2%	-2.0%	-7.1% ↓
'26년	-1.0%	-0.9%	-1.0%	-1.5% ↓
'27년	-	1.0%	-	0.0%

*자료 : worldsteel('26.4월), WoodMac('26.3월), 중국 야금공업규획연구원('25.12월)

○ [건설] 기반시설 인프라 및 부동산 등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로
건설용 수요는 구조적 성장 한계에 봉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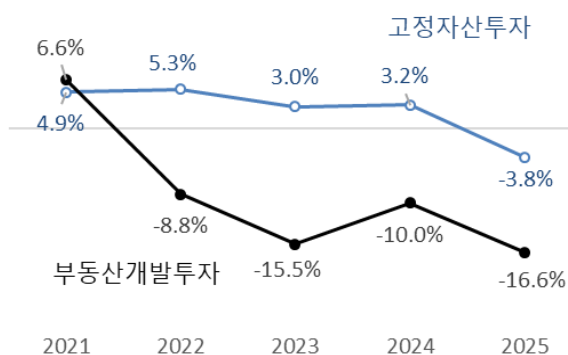
- 고정자산투자는 성장세가 둔화되다가 '25년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, 부동산개발투자는 정부 주도의 부동산 부양책 부재로 4년 연속 감소
- 또한 지방정부 재정 악화와 미분양 주택 증가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제한적 회복에 그침

☞ 건설용 수요는 단기간 내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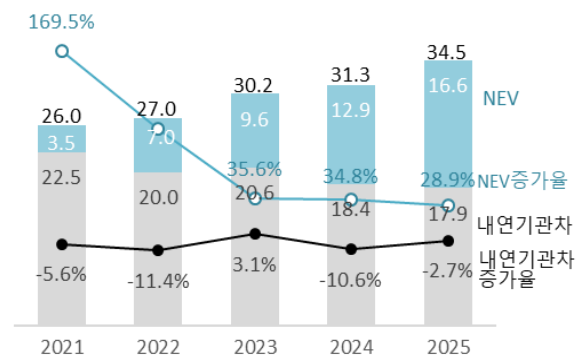
○ [제조업] 친환경 자동차, 에너지, 기계 등 제조업 부문은 지속
성장세를 보이면서 고급 강재 수요를 견인

- 자동차: '25년 생산은 10.3% 늘어나 3,500만대를 기록하는 호조를 보였는데, 이는 신에너지차(New Energy Vehicle, NEV) 생산이 28.9% 늘어난 데 기인
- 기계: 현대화 시스템 구축, 농업 기계화율 상승, 산업분야의 녹색 전환,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등으로 농기계, 공작기계, 기타 기계장비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늘어남
- 가전: 3대 가전 생산은 정부 이구환신 등의 촉진 정책, AI 활용 프리미엄 가전 및 교체 수요 등으로 3년 연속 증가세

【 중국 건설부문 투자 지표 】



【 중국 자동차 생산 추이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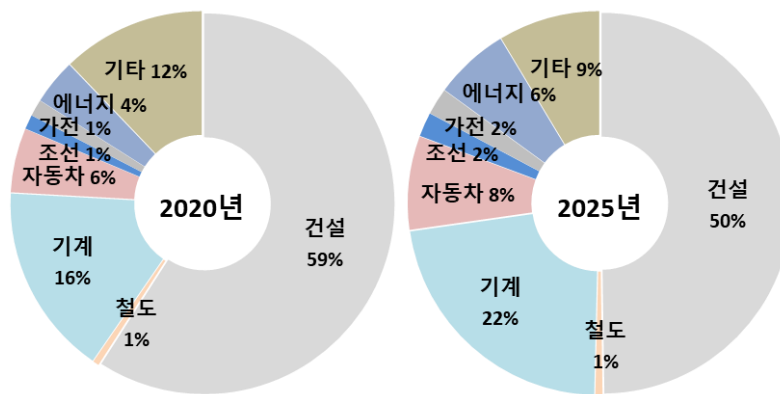


*자료 : CEIC, POSRI

○ 전통산업 고도화와 미래산업 육성으로 철강소비도 자동차, 新에너지, 기계 등을 중심으로 재편 중

- 중국 철강소비는 지난 5년간 전기차, 로봇, 신에너지 설비투자 확대, 산업 설비 교체 수요 등으로 제조업 부문 중심으로 확대,
- 자동차 비중은 '20년 6%에서 '25년 8%로, 기계용은 동기간 16%에서 22%로 에너지용은 4%에서 6%로 확대
- 반면, 건설용 비중은 '20년 59%에서 '25년 50%로 크게 감소하고 있어 실제 강재 소비에서의 산업 재편 효과가 나타남

【 중국 산업별 철강수요 비중 】



*자료 : 중국 야금공업규획연구원, POSRI

3. 인도 수요, 주요국 중 가장 독보적인 고성장

□ 인도의 탄탄한 철강 내수는 지정학 리스크와 수출 여건 불확실성을 상쇄하는 완충 역할(Resilience)을 하면서 글로벌 철강수요를 지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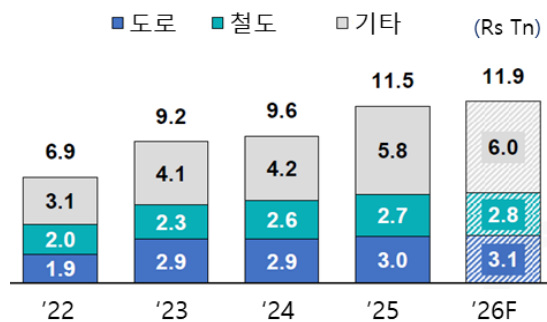
○ 인도 철강 수요는 7%대의 경제 고성장과 견조한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어 '26~'27년 7~9% 고성장 전망

- '26~'27년 수요산업 성장률은 '25년에 비해 다소 둔화되나 여전히 균형 있는 견조한 성장을 하면서 안정적인 철강수요 기반을 다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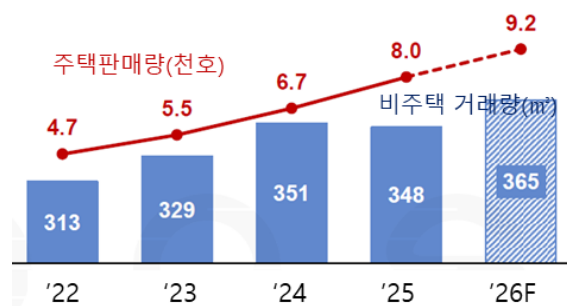
○ 건설산업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주택·비주택 및 데이터 센터 거점화 등으로 견조한 성장

- 도로, 철도 및 도시개발 분야의 정부 자본 지출 확대로 인프라 확충을 핵심 동력으로 하며, 글로벌 역량 센터(GCC) 오피스 공간과 프리미엄 주택 등 부동산 수요도 호조
- 인도가 데이터센터의 글로벌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민간 투자가 급증 : AI와 클라우드 수요에 힘입어 '26년에는 전년비 70% 내외 성장 예상
- ☞ 정부의 재정 여력 한계 및 에너지 변동성에 따른 직접적 타격 등의 제약 요인 상존

【 인도 정부 인프라 지출 】



【 부동산 관련 지표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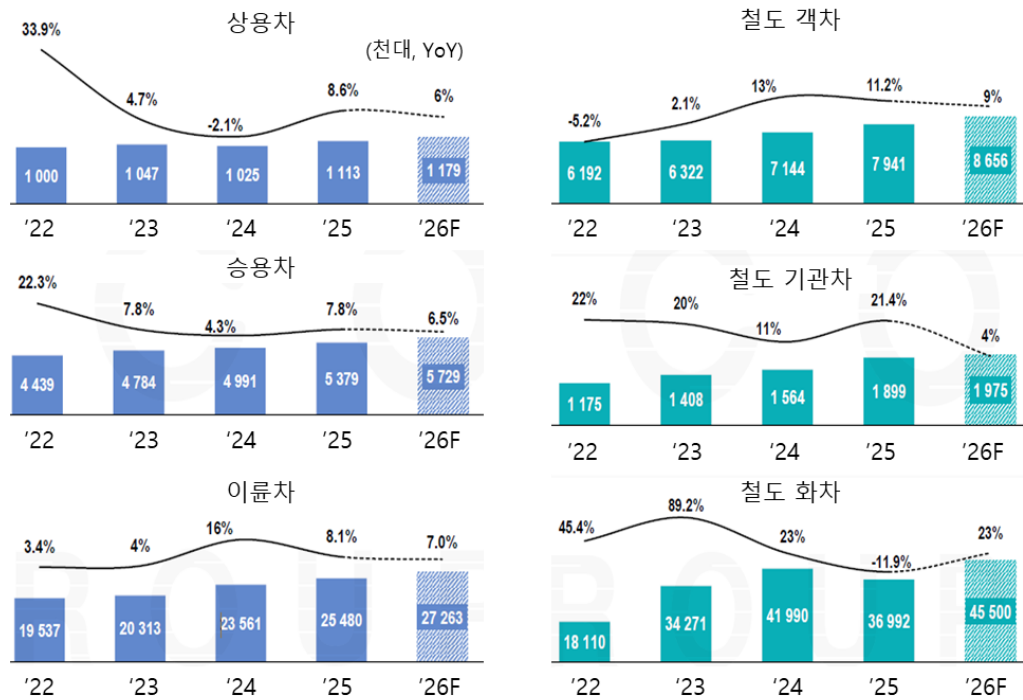


*자료 : CMIE(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), RBI, CGA(Controller General of Accounts of India)

○ 자동차/철도 산업은 정책 지원, 화물 물동량 증가, 노선망 확장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 지속

- 자동차는 경제 고성장에 따른 구매력 향상, 정부 대출규제 완화 및 노후 차량 교체 수요 등에 힘입어 '26년 6~7%대 견조한 성장 유지
- 철도는 고속철도 추가 도입, 전용 화물 노선 구축 등의 정부 지원을 비롯한 신규 열차 모델 출시 등으로 '26년 고성장
- ☞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과 물류 불안 → 수출 위축과 생산 감소 영향 우려

【 인도 자동차, 철도 수요 】



*자료 : CMIE, SIAM(Society of Indian Automobile Manufacturers), Railway Board

4. 아세안·중동, 중국 수요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한계

□ '26년 신흥국 수요, 중동전쟁 충격에 따른 MENA 지역 감소와 ASEAN 증가세 둔화 등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을 전망

- 5년 연속 부진한 중국 수요를 중동, ASEAN, 아프리카 등 신흥국 수요로 만회해 왔으나, '26~'27년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
- [ASEAN-5] '25년 수요 급증(10%)에 대한 기저효과로 '26~'27년에는 1~2%의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
 - 인도네시아, 필리핀은 4~5%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, '25년 수요 증가 폭이 컸던 태국, 베트남은 이후 1~2% 증가에 그칠 전망
 - 그 동안 ASEAN은 세계 수요 성장을 견인할 기회지역으로 평가받아왔지만, 최근 단기간에 급등락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 수요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

* '25년 태국, 베트남 수요의 큰 폭 증가는 재고 축적과 수입 급증 때문이며, 이는 관세에 대응한 선제적 수입과 중국산 수입재의 우회수출 통로 활용 등의 영향으로 추정

【 ASEAN-5 철강수요 전망 】

백만톤, %	ASEAN-5	인니	말련	필리핀	태국	베트남
'25	86.5 (10.2)	19.3 (3.5)	10.0 (25.0)	10.3 (3.9)	18.2 (11.8)	28.8 (12.0)
'26	87.7 (1.3)	20.0 (4.0)	9.0 (-10.0)	10.8 (5.0)	18.5 (1.5)	29.4 (2.0)
'27	89.8 (2.4)	20.8 (4.0)	9.0 (0.0)	11.4 (5.0)	18.7 (0.9)	29.9 (2.0)

*자료: worldsteel('26.4월)

○ [MENA] 중동전쟁에 따른 지역 경제와 산업 활동 타격으로 '26년 수요 4.5% 감소 우려

- 이란 수요는 전쟁의 직접적인 충격으로 '26년 25% 급감하고 '27년에는 기저효과로 10% 반등 예상(단, 전쟁이 단기간 내 끝난다는 가정)
- 사우디 등 GCC(걸프협력회의) 지역의 수요도 호르무즈 해협 갈등의 영향 등으로 '25년의 12.8% 증가 대비 크게 둔화된 3.9% 증가에 그칠 전망

【 중동·아프리카 철강수요 전망 】

백만톤, %	중동	이란	GCC	기타	아프리카	MENA
'25	61.8 (3.8)	20.3 (0.3)	30.0 (12.8)	11.6 (-9.4)	45.0 (10.4)	80.2 (5.2)
'26	57.3 (-7.4)	15.2 (-25)	31.1 (3.9)	11.0 (-5.7)	46.7 (3.8)	76.6 (-4.5)
'27	62.2 (8.6)	16.7 (10.0)	33.7 (8.2)	11.8 (8.0)	48.8 (4.6)	82.4 (7.7)

※주 : GCC는 사우디, UAE, 쿠웨이트, 카타르, 바레인, 오만

*자료: worldsteel('26.4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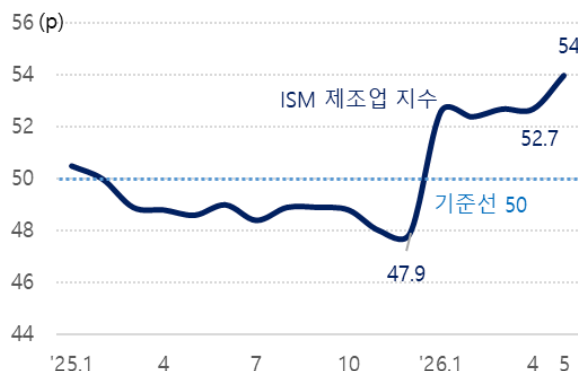
5. 선진국 수요, 회복세 약화로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 하회

□ 미국과 유럽 수요는 소폭 하향 조정 했음에도 완만한 증가세. 반면, 일본은 60년만에 최저치를 보이며 차별화 예상

○ [미국]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동전쟁 영향 등에도 산업활동 개선으로 '26년 1.7%, '27년 2.0%의 완만한 증가에 그칠 전망

- '26년 미국 철강수요는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산업활동 회복(green shoots)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임
- 미국철강협회(AISI)에 따르면, 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고속도로 재건 및 상하수도 교체 등으로 '26년 전년비 1.8% 늘어날 것으로 예상
- 새로운 동력 : 국경 장벽(border wall)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. '26년 1분기에 국경 장벽 프로젝트에 U\$100억 이상 배정 → 100만톤 이상의 추가 철강수요 발생 가능
- 제조업 지표 : 제조업 온쇼어링(Onshoring) 확대 등으로 ISM 제조업 지수는 '26년 1~5월에 5개월 연속 기준선 50을 상회하는 호조를 보임

【 ISM 제조업 지표 】



【 주택경기 지표 】



*자료 : Bloomberg, FRE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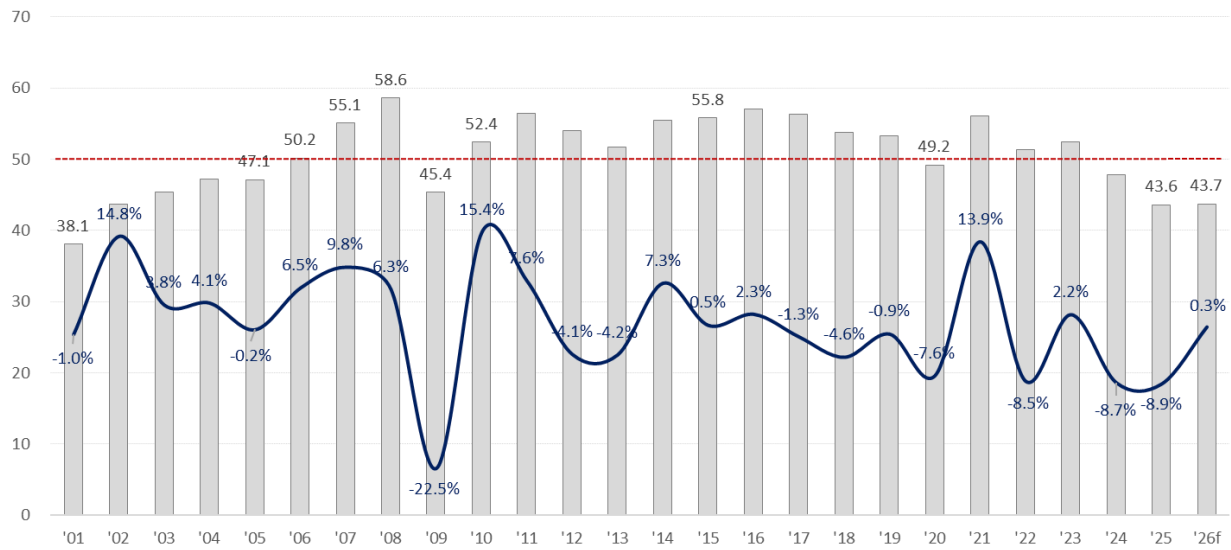
○ [EU+영국] 에너지 비용 상승 충격에 따른 제조업 경기 둔화 등으로 '26년 수요는 예상보다 하향 조정된 1.3%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

- Eurofer에 따르면, '25년 유럽 철강수요는 건설 부문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美 고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, 기계 부문의 감소 폭 확대로 실적 둔화
- '26년에 철강 수요는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하나 중동전쟁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둔화, '27년에 3.0% 증가해 1.5억톤을 넘어서나 코로나19 이전인 '19년의 1.58억톤에 미치지 못할 전망
- **[일본] '26년 철강수요는 5년 연속 감소한 4,790만톤으로 6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**
 - '26년 건설과 자동차용 수요는 지속 감소 반면, 기계와 조선부문 수요가 미약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
 - '27년에는 공공/민간 투자가 늘어나면서 건설용 수요가 소폭 회복되어 1.7%의 미약한 증가가 예상되나 여전히 5,000만톤 하회 전망

6. 한국, 구조적 수요 부진 장기화 우려

- **건설 경기 침체와 제조업 회복 지연으로 '26~'27년 수요는 4,500만톤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**
 - '25년 수요는 4,359만톤으로 23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, 이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자동차 등 제조업 둔화까지 겹치는데 기인
 - 세계철강협회는 한국 철강 수요가 '26년 연간으로 자동차, 건설 등 주력 산업들의 예상 외 둔화 폭 확대에 따라 전년수준에서 정체할 것으로 전망
- **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인한 전방산업의 회복 지연에도 '26년 지난 2년간의 수요 절벽에 따른 기저효과로 반등도 가능**
 - 1~4월 철강 수요는 기저효과 및 수입규제에 따른 국내산 대체로 중후판, 냉연강판 등 판재류를 비롯한 봉형강류의 동반 회복으로 3.2% 증가

【 한국 철강 내수 추이 】



*자료 : 한국철강협회, 세계철강협회, POSRI

※주: 명목소비 = 생산-수출+수입

7. 종합 및 시사점

□ 세계 철강 수요는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나, 중동 지역의 전후 복구 수요에 대한 기대로 반등 가능성도 상존

○ 이번 worldsteel 철강수요 전망에서는 중동전쟁이 글로벌 철강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가정함

- 그러나 과거 경험으로 보면, 지난 1, 2차 오일쇼크 직후 세계 철강수요가 크게 감소한 바 있음(1975년 $\Delta 8.5\%$, 1980년 $\Delta 4\%$).
-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최악 시나리오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
- 러-우 전쟁이 함께 종식될 경우, 그동안 부진했던 글로벌 철강수요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요구됨

○ 주요국 철강 수요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충격을 받고 있으며, 한국 철강업계는 각국 펀더멘털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수출 공략법 모색

-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·유럽 철강 수요는 중동전쟁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나,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산업활동 개선 등의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만큼 강화된 수입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전략 필요
- 중국 철강 수요는 질적 성장 전환에 따라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, 중장기적으로 경제·산업 재편 이후 플러스 성장 전환時 글로벌 철강경기 개선에 기여할 것이므로 시장 모니터링 지속 필요

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[참고자료]

【 주요 지역별 철강수요 전망 】

(백만톤, %)	2022	2023	2024	2025	2026(f)	2027(f)
EU27+영국	151.3 (△7.6)	137.3 (△9.3)	139.7 (1.7)	144.9 (3.8)	146.7 (1.3)	151.2 (3.0)
기타유럽	39.0 (△3.0)	44.6 (14.5)	45.3 (1.4)	46.8 (3.3)	48.8 (4.4)	49.1 (0.5)
튀르키예	32.5 (△2.6)	38.0 (17.0)	38.3 (0.6)	39.3 (2.6)	41.2 (5.0)	41.2 (0.0)
CIS	51.7 (△12.1)	60.3 (16.7)	59.2 (△1.9)	53.6 (△9.5)	53.5 (△0.1)	54.5 (1.7)
러시아	41.7 (△5.0)	44.6 (7.0)	43.7 (△2.1)	37.6 (△14.0)	37.2 (△1.0)	37.6 (1.0)
USMCA	132.9 (△3.7)	132.5 (△0.3)	129.7 (△2.1)	128.4 (△1.0)	131.1 (2.1)	134.1 (2.2)
미국	94.5 (△2.8)	90.5 (△4.2)	89.1 (△1.6)	90.9 (2.0)	92.4 (1.7)	94.3 (2.0)
중남미	45.0 (△11.5)	45.8 (1.7)	46.8 (2.2)	50.5 (7.8)	49.8 (△1.3)	50.8 (2.0)
브라질	23.5 (△10.6)	24.0 (1.9)	26.1 (8.9)	26.8 (2.6)	27.0 (1.0)	27.7 (2.5)
아프리카	35.3 (△10.0)	38.6 (9.3)	40.7 (5.6)	45.0 (10.4)	46.7 (3.8)	48.8 (4.6)
중동	53.1 (2.8)	55.5 (4.7)	59.6 (7.2)	61.8 (3.8)	57.3 (△7.4)	62.2 (8.6)
亞/대양주	1,269.2 (△2.3)	1,263.9 (△0.4)	1,230.1 (△2.7)	1,187.2 (△3.5)	1,190.1 (0.2)	1,211.4 (1.8)
중국	926.7 (△2.9)	905.1 (△2.3)	856.6 (△5.4)	796.0 (△7.1)	784.1 (△1.5)	784.1 (0.0)
한국	51.3 (△8.5)	52.4 (2.2)	47.8 (△8.9)	43.6 (△8.8)	43.7 (0.3)	44.2 (1.1)
일본	53.0 (△4.4)	51.6 (△2.5)	49.7 (△3.8)	48.0 (△3.4)	47.9 (△0.1)	48.7 (1.7)
인도	116.1 (9.3)	132.8 (14.4)	147.9 (11.4)	159.8 (8.0)	171.6 (7.4)	187.4 (9.2)
ASEAN-5	72.9 (0.3)	72.4 (△0.7)	78.5 (8.4)	86.5 (10.2)	87.7 (1.3)	89.8 (2.4)
세계	1,777 (△3.5)	1,779 (0.1)	1,751 (△1.5)	1,718 (△1.9)	1,724 (0.3)	1,762 (2.2)

*자료 : worldsteel, Short Range Outlook, '26.4월

[참고자료]

[보고서/논문]

CRU, Industrial and Economic Outlook, March 2026

Eurofer, Economic and Steel Market Outlook 2026-2027, March 2026

worldsteel, Short Range Outlook, October 2025

worldsteel, Short Range Outlook, April 2026

WoodMac, Global Steel Strategic Planning Outlook, March 2026

Clackson, World Shipyard Monitor, April 2026

[홈페이지]

세계철강협회 (<http://www.worldsteel.org/>)

OECD (<http://www.worldsteel.org/>)

중국국가통계국 (<http://stats.gov.cn/>)

중국자동차공업협회 (<http://www.caam.org.cn/>)

중국야금공업규획원 (www.mpi1972.cn/)

인도자동차제조업협회 (<http://www.siam.org/>)

미국철강협회(<http://www.steel.org>)

한국자동차산업협회 (<http://www.kama.or.kr/>)

한국철강협회 (<http://www.kosa.or.kr/>)

CEIC (<http://www.ceicdata.com/>)